

2020년 2월 25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다우지수, 2년내 처음으로 1,000pt 넘게 급락 코로나 19 공포는 차익 욕구를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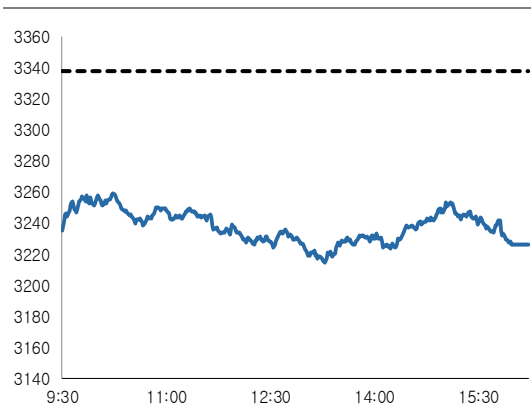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공포, 고 밸류, 규제 강화

미 증시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급락. 코로나 이슈가 글로벌로 확대되면서 공급망 훼손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다는 평가. 그 외에 민주당 대선 경선, 디지털세를 둘러싼 우려 또한 영향. 이 결과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다우지수가 1,000pt 넘게 급락(다우 -3.56%, 나스닥 -3.71%, S&P500 -3.35%, 러셀 2000 -3.01%)

미 증시가 코로나 19 공포심리가 높아진 여파로 다우 지수가 1,000pt 넘게 급락. 지수 하락 요인을 보면 겉으로는 코로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약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 팩트셋에 의하면 21일 기준 S&P500 12m Fwd PER은 18.9배로 5년평균(16.7배)을 상회. 대 중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들의 투입비용 증가로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S&P500 2019년 yoy +0.6%) 지수는 28.9%나 급등했기 때문. 최근 미 증시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회사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이를 방증.

이런 가운데 미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법인세 인상 및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차익욕구를 자극. 29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가 1위를 기록한다면 3월 3일 일명 슈퍼 화요일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여기에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정식 승인한 점도 부담. G20은 7월까지 핵심사항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그 대책을 마련. 문제는 미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EU와 미국간의 무역 분쟁의 불씨로 자극될 수 있으며,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이러한 약재성 재료가 코로나 19 공포심리를 기회로 매물 출회 하게 만들었다는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을 위한 변동성 확대 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79.04	-3.87	홍콩	26,820.88	-1.79
KOSDAQ	639.29	-4.30	영국	7,156.83	-3.34
DOW	27,960.80	-3.56	독일	13,035.24	-4.01
NASDAQ	9,221.28	-3.71	프랑스	5,791.87	-3.94
S&P 500	3,225.89	-3.35	스페인	9,483.50	-4.07
상하이종합	3,031.23	-0.28	그리스	818.35	-8.36
일본	23,386.74		휴장		
			이탈리아	23,427.19	-5.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급락

엑손모빌(-4.67%), 코노코필립스(-3.52%), EOG리소스(-5.79%) 등 에너지 업종은 수요 둔화 우려 부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하락했다. 알파벳(-4.29%), 페이스북(-4.50%), 아마존(-4.14%), 애플(-4.75%), MS(-4.31%) 등 대형 기술주는 G20의 디지털세 확정에 따른 규제 강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특히 조세 회피를 위한 조치가 디지털세 부과로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JP모건(-2.69%), BOA(-4.74%) 등 은행주 및 비자(-4.80%), 마스터카드(-4.42%) 등 카드 회사, 마이크론(-3.47%), 브로드컴(-4.24%), NVIDIA(-7.07%) 등 반도체 관련주, 테슬라(-7.46%) 등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코로나 공포감은 UPS(-3.39%), 페덱스(-5.15%) 등 물류회사 및 부킹닷컴(-7.06%) 등 여행주, 카니발(-9.43%), 라스베이거스 샌즈(-5.17%), 윈리조트(-6.08%), MGM(-5.38%) 등 리조트 및 카지노 회사들의 급락을 야기 시켰다. 반면, 금 가격 상승에 따라 뉴몬트마이닝(+1.66%)가 상승했으며, 길리어드사이언스(+4.59%)는 WHO가 항 바이러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19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자 급등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6.12%	대형 가치주 ETF(IVE)	-3.08%
에너지섹터 ETF(OIH)	-7.31%	중형 가치주 ETF(IWS)	-2.78%
소매업체 ETF(XRT)	-3.56%	소형 가치주 ETF(IWN)	-2.96%
금융섹터 ETF(XLF)	-3.25%	대형 성장주 ETF(VUG)	-3.62%
기술섹터 ETF(XLK)	-4.13%	중형 성장주 ETF(IWP)	-3.0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44%	소형 성장주 ETF(IWO)	-3.08%
인터넷업체 ETF(FDN)	-3.61%	배당주 ETF(DVY)	-2.31%
리츠업체 ETF(XLRE)	-1.34%	신흥국 고배당 ETF(DEM)	-4.22%
주택건설업체 ETF(XHB)	-2.4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2.81%
바이오섹터 ETF(IBB)	-2.63%	미국 국채 ETF(IEF)	+0.78%
헬스케어 ETF(XLV)	-3.15%	하이일드 ETF(JNK)	-1.08%
곡물 ETF(DBA)	-2.00%	물가연동채 ETF(TIP)	+0.46%
반도체 ETF(SMH)	-4.53%	Long/short ETF(BTAL)	+2.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86.70	-4.74%	-5.64%	-10.01%
소재	368.08	-2.86%	-3.14%	-1.92%
산업재	683.15	-2.98%	-4.16%	-3.03%
경기소비재	994.64	-3.53%	-4.59%	+0.39%
필수소비재	648.06	-2.48%	-2.60%	-0.82%
헬스케어	1,164.14	-3.26%	-3.75%	-2.44%
금융	493.01	-3.27%	-4.49%	-2.19%
IT	1,670.32	-4.19%	-6.61%	-2.38%
커뮤니케이션	182.85	-3.32%	-4.52%	-2.99%
유틸리티	351.54	-1.16%	-1.34%	+1.24%
부동산	256.23	-1.34%	-1.34%	+3.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출발 후 낙폭 축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5.23% MSCI 신흥 지수 ETF 는 3.74%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856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2.65pt 하락한 278.5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8.5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공포 심리가 부각되며 4% 가까이 급락했다. 특히 공급망 훼손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내수 또한 얼어붙게 되었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 또한 다우 지수가 1,000pt 넘게 급락하는 등 공포심리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오늘 한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최근 조정이 단순히 코로나 이슈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조정폭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이슈 보다는 그동안 시장이 우려했던 높은 밸류에이션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업종 및 종목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감안 최악의 경우 한국 증시는 12m fwd PER 5 년평균인 9.9 배인 1,960pt 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 기업이익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지 않는다면 2,000pt 를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를 감안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신규 주문 급감

1 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51)이나 예상(-0.60) 보다 개선된 -0.25 로 발표되었다. 3 개월 평균도 전월(-0.23) 보다 개선된 -0.09 로 발표돼 연초 미국 경기 개선세가 이어졌음을 보증한다.

2 월 달러스 연은 지수는 전월(-0.2)보다 개선된 1.2 로 발표되었으나, 예상(2.1)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생산지수(10.5→16.4)는 증가했으나, 설비가동률(11.5→11.3), 고용지수(1.9→0.9)는 하락했으며 특히 신규수주(17.6→ 8.4)는 급감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로 급락

국제유가는 코로나 19 로 인한 공포심리가 부각되며 급락 했다. 특히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이 향후 수요 부진 우려를 자극해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국제유가는 사우디 아람코 CEO 가 코로나 영향은 단기적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 힘입어 하락세가 멈췄다.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 양상을 보였다. 엔화는 스위스 프랑과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으나, 달러 대비 보험권을 유지 했다. 한편, 역외 위안화도 달러 대비 보험권을 유지했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19 공포 심리로 하락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CME FedWatch 에 따르면 6 월 연준의 금리인하 확률을 77%로 전일(60%)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된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휴장이 이어졌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1.43	-3.65	-1.70	Dollar Index	99.292	+0.03	+0.29
브렌트유	56.30	-3.76	-2.38	EUR/USD	1.0853	+0.06	+0.16
금	1,676.60	+1.69	+5.69	USD/JPY	110.71	-0.81	+0.76
은	18.960	+1.86	+6.43	GBP/USD	1.2927	-0.29	-0.62
알루미늄	1,699.00	-0.85	-1.28	USD/CHF	0.9788	+0.06	-0.20
전기동	5,689.00	-1.32	-2.12	AUD/USD	0.66	-0.41	-1.70
아연	2,046.00	-3.26	-5.80	USD/CAD	1.3290	+0.49	+0.42
옥수수	376.25	-1.18	-1.51	USD/BRL	4.3885	-0.03	+2.25
밀	534.75	-3.13	-1.25	USD/CNH	7.0359	-0.01	+0.73
대두	882.50	-1.84	-2.30	USD/KRW	1220.20	+0.91	+3.07
커피	106.90	-3.04	-4.00	USD/KRW NDF 1M	1218.56	+0.97	+2.8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364	-10.75	-22.10	스페인	0.206	-1.80	-7.90
한국	1.420	-2.70	-19.50	포르투갈	0.222	-1.20	-6.40
일본	-0.056	0.00	-2.30	그리스	0.992	+4.60	+6.00
독일	-0.481	-5.00	-8.00	이탈리아	0.966	+5.70	+6.30